

30년 노후 부산 신평장림산단 친환경 에너지 산단 ‘탈바꿈’

남부발전, 8개 기관과 컨소시엄 구성
2029년까지 태양광·ESS 등 구축
운영 수익, 재생에너지 확대 등 활용

한국남부발전이 부산의 대표적 노후 산업단지인 신평장림산업단지를 친환경 탄소중립 산단으로 전환하는 국책 사업을 맡는다.

남부발전은 산업통상부와 한국산업단지공단이 공모하고 부산광역시가 지원하는 ‘신평장림산업단지 에너지 자급자족 인프라 구축 및 운영사업’을 수주했다고 밝혔다.

남부발전은 사업 주관기관으로서 신재생에너지 노하우를 보유한 그랜드션 기술단, 협성임프, 세광, 한빛이노텍을 비롯해, ESS 구축과 지능형 전력망 인프라 구현 기술을 보유한 누리플렉스, 부산시 산하 부산테크노파크, 선영파트너스 등 총 8개 기관이 참여하는 컨소시엄을 구성해 사업 수행 역량 면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이번 프로젝트는 1990년 조성 이후 30년 이상 지나 노후화된 부산 신평장림산업단지에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를 보급하고, ESS(에너지저장장치)를 활용한 전력계통 안정화 설비 등을 구축해 탄소



부산 사하구 신평장림산업단지 일대 모습

/남부발전

중립산단으로 탈바꿈시키는 것이 골자다.

사업 규모는 올해부터 2029년까지 4년간 정부출연금 200억원, 지방비 30억원, 컨소시엄 투자비 90억원 등 총 320억원이다. 이를 통해 ▲산업단지 공장 지붕 및 공공 유휴부지를 활용한 태양광발전 구축 ▲건물일체형태양광(BIPV) 신기술 입증 ▲입주기업 에너지 진단 및 고효율 설비 교체 지원 ▲지능형 전력망 기반 전력 계통 안정화 설비 구축 등이 순차적으로 추진된다.

또한, 사업 운영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

을 산업단지 내에 재생에너지를 보급하는데 재투자하고, 지역사회에 운영 수익을 직접 나누는 햇빛소득 도입, 탄소배출 저감 등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에도 앞장 선다는 계획이다.

김준동 남부발전 사장은 “부산 신평장림산단 내 분산에너지원 보급 활성화를 통한 에너지 공급 안정화와 산업단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metro

전북 지역에 AI ESS 구축 동서발전, 전력망 안정화

기후부 ‘AI활용 ESS 구축사업’ 선정
한전KPS·신성이엔지와 컨소시엄

태양광 발전설비 급증으로 전력망 접속 대기 정체가 심각한 전북 지역에 인공 지능(AI)을 결합한 대규모 에너지저장장치(ESS)가 구축된다.

한국동서발전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주관하는 ‘2026 인공지능(AI) 활용 에너지저장장치(ESS) 구축지원 사업’ 사업자로 최종 선정됐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재생에너지 접속 대기가 집중된 배전선로에 ESS를 설치하고, AI 기반 통합발전소(VPP)로 운영해 배전망 혼잡을 완화하는 사업이다. 남은 전기를 배터리에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공급하는 방식으로, 전력망 부담을 줄이고 더 많은 재생에너지를 수용할 수 있게 된다.

동서발전은 한전KPS, 신성이엔지와 컨소시엄을 구성했으며 배터리와 전력변환장치(PCS) 등 핵심 설비를 모두 국산 제품으로 채택했다. 이를 통해 전북지역

3개 배전선로에 총 60MWh 규모의 ESS를 구축하고, 약 17MW 수준의 태양광 설비를 전력망에 추가 연계할 계획이다.

운영은 통합발전소 운영 역량을 갖춘 동서발전이 맡아 향후 20년간 이끈다. 동서발전은 자체 AI 기술을 바탕으로 전력망과 태양광 발전 상황에 맞춰 배터리 충·방전 시점을 실시간 조절해 계통 안정성과 설비 안전을 동시에 확보할 방침이다.

기존 배전망의 효율을 극대화하는 이번 모델은 성과에 따라 향후 재생에너지 밀집 지역으로의 확산과 국내 ESS 산업 생태계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권명호 동서발전 사장은 “동서발전은 통합발전소(VPP)를 비롯해 에너지 효율화, 수요관리(DR) 사업 등 에너지신산업 분야에서 역량을 쌓아왔다”며 “태양광 포화 지역에서 인공지능 기반의 에너지저장장치 모델을 성공적으로 구축해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오른쪽 두번째부터) 권명호 한국동서발전 사장, 이영조 한국중부발전 사장,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및 관계자들이 ‘2026 인공지능 활용 에너지저장장치 구축지원 사업’ 사업자 선정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동서발전

송미령 “농어촌 기본소득 법제화”… 균형발전 힘 신는다

(농식품부 장관)

청양군 성공모델 전국 확대

정부가 ‘농어촌 기본소득의 법제화’를 추진한다. 이를 통해 현재 진행 중인 시범사업의 전국 각지 확산을 도모할 계획이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4일 기본소득 시범사업 시행지인 충남 청양군 대치면을 찾은 자리에서 해당 정책사업의 명문화가 요구된다는 견해를 밝혔다.

송 장관은 “연내 기본소득 법제화를 통해 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또 “농어촌이 새로운 성장동력의 공간으로 국토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운영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현장에서는 시범사업 추진현황을 점검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하고 지역 주민대표들과 현장 간담회도 가졌다. 또 기본소득과 연계한 ‘농촌 일상 생활 불편 해소 서비스’ 추진현황을 보고 받고, 지역 내 한 고령자의 거주지를 방문해 주택 내부 수리작업도 거들었다.

그는 “농촌마을에 혼자 거주 중인 고령 어르신들의 경우, 간단한 전등 교체조차

도 어려움이 많은 것이 사실”이라며 “(청양군의 불편해소 서비스는) 기본소득과 생활서비스가 결합된 좋은 사례”라고 했다.

송 장관은 이날 청양방문을 끝으로 기본소득을 시행 중인 10개 군에 대한 현장 점검을 모두 마쳤다.

청양의 경우, 기본소득과 연계한 다양한 생활서비스가 자리 잡았고 지역 주민의 생활불편 사항도 개선되는 등 정책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 지역 인구는 매년 감소해 오다, 기본소득 시행 이후 973명(+3.3%) 늘면서 3만 명 선을 회복했다. 지역화폐 가맹점도 226개소 증가(+20.6%)하며 지역 경제에 활기가 다시 돌고 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AI가 바꾸는 해양산업… 인천국제해양포럼 개막

해수부, 오늘부터 이틀간 개최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해양산업의 미래와 기술’ 동향을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해양수산부는 이달 15~16일 이틀간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제7회 인천국제해양포럼’을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올해로 7회째를 맞는 이 포럼은 해양분야 전문가와 기업인이 한데 모이는 자리다. 올해는 ‘AI 시대, 해양의 미래’를 주제로 해운·물류, 스마트항만, 해양관광 등 주요 분야별 6개 세션과 부대행사가

예정돼 있다.

행사 첫날인 15일에는 개회식과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해운·물류(AI와 국제 네트워크) ▲해양관광(AI 시대 해양관광) ▲스마트 항만(실물 AI와 스마트항만의 미래) ▲해양환경과 에너지(해양에너지와 AI) 등 4개 세션이 열린다. 기조강연자로 최재봉 성균관대 교수와 주시현 현대차·기아 상무가 나선다.

16일에는 ▲AI 기반의 해양도시(AI 시대의 미래 모빌리티와 지능형 해양도시) ▲인천의 AI 산업에 대한 특별세션 등 주제별 토론이 이어진다.

포럼에서는 해양산업 현장에 활용될

첨단 기술을 직접 체험하는 기회도 제공된다. 항만 감시·정찰용 보행 로봇과 화물 분류·적재용 팔레타이징 로봇 등 산업용 로봇을 비롯해 바리스타·캐리커처 로봇 등 일상 속 다양한 로봇 시연이 펼쳐진다. 대학(원)생 AI 경진대회와 세미나도 함께 열린다.

황종우 해수부 장관은 “인천국제해양포럼은 동북아시아를 대표하는 해양 담론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이번 포럼이 해양을 둘러싼 변화에 대응하는 해법을 찾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TR, 베트남 최대 인증기관과 협력 강화

‘비나컨트롤’과 업무협약 체결
현지 인허가 규제 대응 체계 구축

국내 산업기계 및 설비 제조기업들의 까다로운 베트남 수출길이 한층 넓어질 전망이다.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은 정병찬 원장 직무대행이 13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베트남 시험인증 기관인 비나컨트롤(Vinacontrol) 판반형(Phan Van Hung) 부사장과 산업설비, 보일러, 승강기 등 주요 산업 설비 검사 협력 사업을 수행한다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비나컨트롤은 1957년 베트남 최초로 설립된 검사 및 시험 인증 기관으로, 현재 산업기계, 플랜트, 전기설비 및 탄소중립 등 주요 산업분야에서 베트남 내 최대 규모의 검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베트남은 수입 산업 설비에 대해 부처 지정 검사기관을 통한 선적 전 또는 현지 검사를 의무화하고 있다. 특히 보일러, 승강기, 방폭 전기기기 등은 관련 부처와 용도에 따라 인허가 규정이 별도로 운영되어 그동안 국내 수출 기업들은 현지 기관과의 협력 및 규제 대응 체계 구축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날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베트남 수출에 필수적인 현지 검사를 비롯해 시험 인증 기술 및 정보 교류를 확대한다. 나아



정병찬 KTR 원장 직무대행(왼쪽)과 베트남 비나컨트롤 판반형 부사장이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KTR

가 수출기업 대상 공동 세미나, 탄소중립 검증 협력 등 베트남 진출 국내 기업의 규제 대응을 위한 다양한 기업 지원 활동도 공동 모색할 계획이다.

KTR은 이미 지난 2024년 베트남 하노이에 시험인증 독립법인을 설립해 운영 중이다. 이를 통해 산업용 기계, 전기용품, 이차전지, 생분해성 플라스틱 등의 시험서비스와 의료기기, 화장품, 식품 분야의 등록대리인 역할을 수행하며 현지 거점 역량을 다져왔다.

KTR 정병찬 원장 직무대행은 “이번 협약으로 베트남 수출 기업들을 위한 신속하고 정확한 현지 검사 지원 체계를 갖추게 됐다”며 “앞으로도 부처별, 분야별로 다양한 베트남 수출 규제 극복을 돕기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발굴,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